

현대 복식에 나타난 에스닉 미니멀리즘에 관한 연구

- 미니멀리즘(minimalism)과의 비교 고찰을 통하여 -

채혜숙* · 채금석**

숙명여자대학교 의류학과 박사과정* · 숙명여자대학교 의류학과 교수**

A Study on the Ethnic Minimalism Expressed in Mordern Fashion

- Comparing with Minimalism -

Hye-Sook Chae* · Keum-Suk Chae**

Doctoral Course, Dept. of Clothing & Textile, Sookmyung Women's University

Professor, Dept. of Clothing & Textile, Sookmyung Women's University

(2007. 12. 31 투고)

ABSTRACT

Since 1960, minimalism has been one of the fashion phenomenon and turned out in many different ways. After postmodernism which contains negotiation and pluralism, appeared in 1980, there was a new wave of post minimalism that inherited 1960's minimalism.

Minimal style which come out of 60's fashion, is marked by simplicity, minimal expression, and monochrome color, and it shows up simple style with no decoration. It opened up a young fashion period, and we saw minimal style in sports wear which utilized simplicity and function with spread of sports in the 70's.

And also since 1980, Post-Modern widely influenced the idea about modern culture as well as complicated clothes getting rid of fixed concept, seeking to break the boundary between culture and life which were seek in fashion and personality as well as various characteristic, Accordingly in different ages, The style and image were borrowed from different culture and natural environment mixing the image, cultural phenomena like these appearing in complexity and expression, variety and possibility of new vision was expanded.

Since 1980, Fashion has become more gradually diversity, high classed, required of each individuality. The phenomenon of fashion reappearance which was influenced by minimalism is continued to 2000. The Oriental style fashion is still attracted, so The new term "Ethnic Minimalism" has appeared along with the trends which is put together.

Therefore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search the concept and the characteristics of ethnic minimalism, to consider the relationship between minimalism and ethnic minimalism, and reveal the characteristic of ethnic minimalism happened to modern fashion.

The study method went through literature research and practice research. The range of this

study is oriental fashion spanning of from 1960 to current day.

Photo records from this period show well the spirit of the oriental and the personality of minimalism. The oriental representative designer and western representative designer are centered

Consequently, The formative characteristics of ethnic minimalism are simple, pure, unbalanced free style and representing the phenomena of compromise, blending oriental and western fashion. Structurally, Elements of space and plane are emphasized, colors are restricted, and materials are composed mainly of natural fiber.

So, minimalism based on simplicity combined with a structure of oriental spiritual depth and space, It could be called ethnic minimalism as a rational fashion.

Key words: ethnic(민족적), minimalism(최소주의), oriental(동양의), post-modernism(포스트 모더니즘)

I. 서론

모든 문화 예술의 영역들이 시대의 반영물로 그 시대의 사회적 경제적 영향을 받듯이, 패션 역시 그 시대의 정치, 경제적 상황 등 시대상을 반영하여, 시대의 흐름 속에서 가장 민감하게 반응하며 다른 요인들과의 상호작용 속에서 변화 발전한다.

그에 따라, 빠른 유행의 변화 속에 새로운 패션의 경향을 살펴보면, 그 흐름은 과거의 것으로부터 영감을 얻어 재창조 되어지는 경향이 있다.

20세기는 다양성의 시대라고 표현할 수 있으며 여러 스타일의 혼재를 보여주는데, 그 중 60년대 서구 미술계를 지배했던 미니멀리즘의 영향을 받은 미니멀 스타일은 현재까지 다양한 스타일과 혼합되어 미래의 모습을 만들어 내고 있다.

60년대 패션에 나타난 미니멀 스타일은 미니멀리즘 회화의 특징인 단순성, 최소표현, 모노크롬 색채를 그대로 이어받아 장식이 없는 심플한 스타일로 나타났는데, 이는 영 패션 시대를 열었으며, 70년대는 스포츠 확산과 더불어 단순하고 기능성을 살린 스포츠웨어에서 미니멀 스타일을 엿볼 수 있다.

또한, 1980년대 이후 즉, 포스트모던(Post-Modern)은 복식 뿐 아니라 현대 문화 사상 전반에 큰 영향을 미쳤다. 획일화된 고정관념을 없애고 삶과 문화의 경계를 무너뜨리고자 하는 의식은 패션에서 개성과 다원성, 다양성을 추구하게 해 주었다. 따라서 다른 시대, 다른 문화와 자연환경으로부터 양식과 이미지를 차용하고 종합하려는 양식¹⁾이 두드러지게 나타났

는데, 이와 같은 문화 현상은 복식에서도 나타나 표현의 다양성과 새로운 시각의 가능성이 확대되었다.

1980년대 이후, 패션은 점점 다양화되고 고급화되면서 각자의 개성이 요구되어 지는 시기인데, 이 시기의 1960년대 미니멀리즘의 영향에 의한 패션 재현 현상은 2000년 대 까지도 이어지고 있고, 동양풍의 패션이 여전히 관심을 모으고 있는 가운데 이러한 모든 경향이 함께 어우러진 에스닉 미니멀리즘이라는 신조어가 출현되는 계기가 되었다.

지금까지 에스닉 스타일이나 오리엔탈 스타일에 대한 지역별, 시즌별, 디자인 요소별 등의 선행연구가 활발히 이루어졌고 미니멀리즘은 미술사적인 범주으로써 고찰되어 왔지만, 이 두요소가 혼합된 새로운 관점의 에스닉 미니멀리즘에 관한 연구는 아직 진행되지 않았다.

다른 문화에 대한 접촉과 인식 그리고 교류는 자기 민족 중심에서 탈피하여 다문화적 요소가 합성된 새로운 패션 세계를 창출하고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새로이 조명 받고 있는 에스닉 미니멀리즘의 개념을 정립하고 미니멀리즘과의 비교 연구를 통하여 현대 패션에 나타난 에스닉 미니멀리즘 미적 특성을 살펴보고자 한다.

따라서 본 연구의 목적은 다음과 같다.

1. 미니멀리즘과 에스닉 미니멀리즘에 관한 개념과 특성을 살핀다.
2. 미니멀리즘과 에스닉 미니멀리즘과의 특징과 차이를 비교 고찰한다.

3. 현대 패션에 나타난 에스닉 미니멀리즘의 특성을 밝힌다.

연구 방법은,

문헌연구와, 실증연구를 병행하였으며 범위로는 1960년 대 이후에서 현재까지의 동양적인 패션을 범위로 한다.

그림 자료는 1960년대 이후 현재까지의 동양적인 정신과 미니멀리즘적인 특성을 잘 나타내었다고 생각되는 동양의 대표 디자이너와 서양의 대표 디자이너를 중심으로 살펴보았는데 객관성을 위하여 패션 전공자 10인의 의견을 조율하여 시대별로 선정하여 보았다.

II. 미니멀리즘의 특성

1. 미니멀리즘의 개념

미니멀리즘은 기능주의 의식이 싹트면서 출현하였는데, 1920년대 아르누보가 퇴조하기 시작하면서 일상생활 제품을 검소하고 기하학적 형태로 만들기 시작했다. 대량생산 기술과 제품의 기능에 의해서 결정되는 기하학적이고 검소하며, 장식이 배제된 순수한 형태로의 디자인이 모든 공업생산제품에서 구현됨으로써 20세기 모더니즘 디자인 운동의 바탕이²⁾ 마련되었다.

따라서 예술 속에서 어떠한 감정이나 정서를 찾아볼 수 없으니 만큼 여타의 것들은 제거되어지고 최소한의 것들로 축소되어지면서 미니멀리즘이 시대와 더불어 탄생³⁾하게 된 것이다.

즉, 미니멀리즘이란 일루전(illusion)의 극소화를

의미하는 것으로⁶⁾ 작품의 색채, 형태, 구성을 극단적으로 단순화하여 기본적 요소로까지 환원하는 현대 미술의 환원주의적 경향이 절정에 이른 것이며 결과적으로 예술의 본질, 예술의 체험의 본질⁷⁾이라 할 수 있다.

2. 미니멀리즘의 조형적 특성

미니멀리즘의 조형적 특성을 구분 짓고 있는 선행 연구에서는 미니멀리즘에 관한 저자에 따라 근원성, 환원성, 비내부성, 기하학적, 명료성, 단순성, 순수성, 엄격성, 실체성 환경성 등의 여러 부분으로 나누기도 하였고 인진희⁸⁾는 문헌을 통해 본질성, 비관계적 구성, 물질성으로 구분하였고 박성찬⁹⁾은 문헌을 통해 단순성 명료성 반복성으로 나누었는데, 본 연구에서는 박성찬의 문헌을 참고로 단순성, 명료성, 반복성으로 나누어 살펴보겠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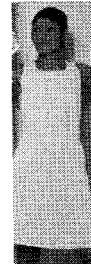
단순성이란 조형적 특성을 가장 잘 표현하는 것으로 제작 과정의 극소화를 통해서 형태나 색채 이외에 아무것도 아닌 상태, 즉 본질성으로 귀결되는 단일한 형태 등의 환원을 말한다.

미술작품에서의 단순성의 표현에서 도널드 저드의 <조각>은 형, 색채의 복잡성이 배제된 절제와 단순의 표현으로 사물의 본질, 즉 기본 요소로 환원되고 있다(그림 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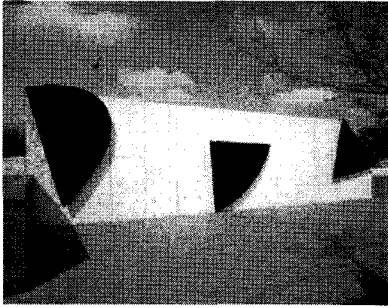
패션에서 표현될 수 있는 단순성은 디자인의 요소인 선, 형, 재질 등의 최소화와 제작과정의 최소화, 적절한 디테일이나 디테일의 제거 등을 들 수 있는데 <그림 2>와 같은 앙드레 쿠레쥬의 의상에서 반영



<그림 1> 1960년대, 도널드저드의 조각⁴⁾



<그림 2> 1960년대, Courreges⁵⁾



〈그림 3〉 1986년, 엘스위스켈리¹⁰⁾



〈그림 4〉 1966년, Pierre Cardin Fashion¹¹⁾

되고 있다고 사료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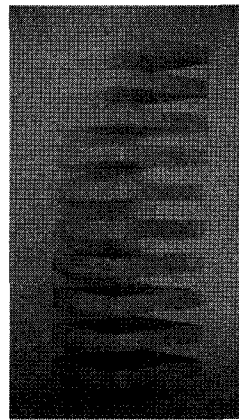
명료성이란 일루저니즘(illusionism)을 최소의 단위로 제거하여 전통회화나 조각의 은유적이고 상징적인 의미로부터 벗어나 엄격하고 중성적인 대상의 세계로서의 3차원 적인 오브제로 풀이될 수 있다.¹⁴⁾

미술 작품에서 명료성의 표현에서, 엘스위스 켈리는 작품에서 보여지듯 단위의 윤곽, 전체 형태 그리고 색채의 선택에서 이루어지는 변화를 제거해 전체로 경험되는 단순 명료한 사물로 인지 되도록 하였다(그림 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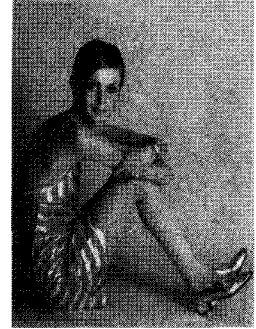
패션에서의 명료성은 형 색채 디테일의 배제로 표현 될 수 있는데, 단일한 색채와 형태로의 환원은 감상자로 하여금 작품의 전체성을 파악 할 수 있게 하고 파악과 동시에 작품간의 본질적 체험을 유발¹⁵⁾시킨다. 의복의 한 아이템 내에서, 그리고 착장시 각 의복 아이템간의 단일색이나 동일 배색 하에 색채의 본질 성을 추구하는 것이다.

또한, 패션에 있어서 벨트, 단추, 액세서리 등의 장식이나, 여타의 요소들을 최대한으로 생략하여 본질성을 추구하고 칼라, 슬리브 등의 디테일을 생략하여 명료성을 추구한다. 〈그림 4〉의 피에르 가르망의 작품은 그러한 명료성이 반영되고 있는 한 예라고 볼 수 있다. 반복성이란 완전하게 대칭을 이루는 형태의 배치나, 강조점이 없이 동등한 비중을 갖는 격자무늬 조직 혹은 색상의 관계보다는 총체적 조직의 강조¹⁶⁾를 통해 형태가 대비나 상호영향을 미치는 작용을 하기보다는 반복과 연속성의 관계를 갖게 되는 것을 뜻한다.

미술에서의 작품표현을 보면 저드의 열린 입방체



〈그림 5〉 1970년대, 도널드저드¹²⁾



〈그림 6〉 1967. 트위기의상¹³⁾

는 유일하게 ‘단일한’ 작품임에도, 열 개의 동일한 면이 반복되고 있다(그림 5).

패션에서의 반복성은 장식적인 모티브의 반복과 다양한 배열의 반복을 통해 나타나게 되는데, 현란한 착시 효과보다는 단순 명료한 기하학적 패턴의 반복¹⁷⁾으로 나타나게 된다(그림 6).

Ⅲ. 에스닉 미니멀리즘의 특성

1. 에스닉 미니멀리즘의 개념

현대 패션계와 문화계 전반의 새로운 트렌드 중 하나가 복잡함, 화려함, 과장됨, 시끄러움 등에서 벗어나 단순하고 순수하고 조용하고 따뜻한 것들을 추

구하는 경향이다. 사회가 복잡해지고 생활방식이 다양할수록 이로부터 탈피¹⁸⁾하고자 하는 욕구가 상대적으로 더 커질 수 밖에 없다. 따라서 미학에 있어 동양의 자연주의적 사상을 통해 공간의 미학이 표현되기도 하며 최근에 서양에서 시작된 미니멀리즘이라는 유행사조가 자연주의와 결합해 동양적인 젠 스타일(zen style)을 연출하기도 하였다.

또한, 퓨전(fusion)된 디자인 양식으로 미니멀리즘적인 요소와 다문화적인 요소들이 공존하는 특징으로 나타나기도 한다.

주로 미국이나 유럽 쪽의 서구적인 스타일을 추구해오던 우리나라에서도 최근에 오픈하는 퓨전 레스토랑이나 카페 인테리어 대부분의 컬러, 작품과 소품 등에서 미니멀 오리엔탈리즘이라는 컨셉¹⁹⁾으로 통일하고 있다. 이와 같은 맥락을 패션에 연결시킬 때, 즉, 에스닉 미니멀리즘²⁰⁾은 패션에 있어 서구와 비서구, 동양풍과 단순미를 절충한 형태로서 전통성을 가지고 편리함, 건강, 아름다움을 고려한 복식²¹⁾ 형태의 의미로 풀이 될 수 있다.

2. 에스닉 미니멀리즘의 정의

에스닉 미니멀리즘²²⁾이란 인류학적, 민족적이라는 의미를 지닌 형용사와 최소주의를 표방하는 미니멀리즘이란 명사가 혼합된 새로운 신조어이다. 에스닉의 사전적 의미는 민족의 특성다운, 민족스러운의 뜻을 나타낸다. 이러한 관점으로 에스닉 양식이라 하는 것은 민족적 양식, 민족의 풍, 또는 민족 특유의 양식이라 할 수 있다. 이렇듯 에스닉 양식은 인종과 신체적 요인 등에 따른 민족 집단이나 각 국가에서 공통적으로 공유하며 타문화와 뚜렷이 구별되는 독특한 양식이 주체가 되어 현대 디자인 이미지로 응용되며 표현되는 양식²³⁾이다.

조재연²⁴⁾은 그의 논문에서, 에스닉의 범주를 논하는데 있어 에스닉이 오리엔탈을 포함하고 있다고 보았는데, 즉 에스닉은 주로 남미, 아프리카, 아시아의 민간 전승적 문화를 지칭하며 유럽 이외의 모든 나라의 민속 의상을 내포하는 에스닉이 유럽의 동쪽 지역을 가리킨다고 하였다.

한편, 조영아²⁵⁾는 그의 논문에서 에스닉을 1980년

대의 동양 모드의 측면으로 언급하고 있는데, 동양 모드의 역사는 1900년대 초를 두고 여러 문헌에서 오리엔탈리즘(Orientalism)을 언급하고 있다. 오리엔탈리즘은 서양에 대한 동양의 개념으로 동양이 타인의 이미지로 표현²⁶⁾되고 있으며, 에드워드 사이드(Edward W. Said)는 그의 저서 '오리엔탈리즘'에서 오리엔탈리즘을 단지 동양에 대한 서양 중심적 사고 방식이라고 말하고 있다. 양윤정²⁷⁾은 민간전승적인 문화의 스타일을 에스닉이라고 보편적으로 생각하며 고도의 완성된 양식의 궁정문화 등은 아시아의 민족 문화라고 하여도 에스닉이라기보다는 오리엔탈 스타일 이라고 사용하는 경우가 많다고 하였다. 따라서 에스닉이라는 용어는 80년대 이후 포스트 모더니즘을 배경으로 패션에 있어 피상적인 스타일에 아울러 문양, 색채, 세부장식 창작 방법에 이르는 복식의 외적 표현과 지역적 특성을 지닌 지역 문물까지 적극적으로 탐구 수용하고 있는 것이다.

또한, 이러한 에스닉적 요소는 1980년대 이후 이분법적 사고의 붕괴, 다원주의, 절충주의 등으로 특징지어지는 포스트 모더니즘의 특성과 관련되어 1990년대 이후 포스트 미니멀(Post-Minimal) 패션²⁸⁾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포스트 미니멀리즘의 패션은 단지 단순하다는 것을 초월하여 구조적으로 새롭게 재구성된 것들로서 일반적인 틀과 고정관념을 깨고 다양한 문화와 장르가 공존하는 모습으로 등장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경향하에 동양 모드의 관련 용어 중 에스닉이란 용어가 선택된 것은 서양에게 권력을 부여하지 않고 동 서양을 대등한 입장으로 보며 현대사회가 동시대적이고 동공간적인 글로벌 시대의 예술 현상으로 가시화시키기 위한 노력의 한 방편으로 생각되며 이에 따라 에스닉 감각이 어우러진 '에스닉 미니멀리즘'이라는 신조어가 탄생하게 된 것이라고 사료되어진다.

3. 에스닉 미니멀리즘의 정신·조형적 특성

1) 정신적 특성

에스닉 미니멀리즘이 인위적인 장식의 배제와 간결함의 추구에 있어서는 상통하지만 서양의 미니멀

리즘이 차갑고 이지적인 면을 갖는데 비해 동양의 미니멀리즘은 더 따뜻하고 인간적인 면을 지니고 있다.²⁹⁾ 고 풀이될 수 있다.

선의 절제에 있어서는 장식성을 최대한 내버리고 간결함을 추구하는 젠 스타일과도 연결지을 수 있다. 정, 여백의 동양미³⁰⁾에서 그 특징을 발견 할 수 있다. 불교연구가 '윤청하'는 서양인들이 '정적인 문화, 내부로의 몰입, 단아함, 깨끗한 정신 등의 동양적인 것 즉 동양의 사상에 기대고 있다³¹⁾고 말한다. 빠르게 변화가는 문명사회에 대한 위기의식, 스트레스 등으로 현대 사회의 물질문명 속에서 잃어 가는 나 자신의 정체성을 나타내게 하는 철학적 태도로써 받아들여지고³²⁾ 있는 것이다.

민속복식과 민족복식과는 용어상에 엄밀한 차이를 나타내는데 민족(nation)은 동일한 인종적 및 지역적 기원을 가지고 동일한 역사적 운명과 문화와 전통, 특히 언어, 종교를 공유하는 사회적 공동체를 말하는데, 민족은 한 지역에서 옛날부터의 습관을 지키고 존속하고 있는 것이 본래 모습³³⁾이다

"민족적"이라 하는 것은 민족의 특성(성격)다운, 민족스러운 것을 말한다. 이렇게 볼 때 에스닉 양식이라 하는 것은 민족적 양식, 민족의 풍(風), 또는 민족 특유의 양식이라고 할 수 있다.

에스닉 양식은 인종에 따른 신체적 요인과 시대적인 역사적 요인, 풍습과 전통 등의 문화적 요인, 자연적 요인, 재료, 기법적 요인 등에 따르고 있다. 또한, 민족 집단이나 각 국가에서 공통적으로 공유하며 타문화와 뚜렷이 구별되는 독특한 양식이 주제가 되어 현대 디자인 이미지로 응용되며, 표현되는 양식³⁴⁾이다. 따라서 민족의 문화, 전통, 습관 등에 따라 구별이 있게 되는 것이다.

이국성에 있어서는, 어느 민족이든 온전한 단일 인종으로 형성된 민족은 없다. 어느 민족이든 다른 요소가 섞여 있어 복잡체를 이루고 있는 것이며, 다만 거기에 근간을 이루고 있는 요소가 언제든지 우세하고 뚜렷하게 항상 지배적 지위에 있어 다른 요소를 융합³⁵⁾해온 것 뿐이다.

민족은 한 지역에서는 옛날부터의 습관을 지키고 존속하고 있는 것이 본래 모습이나 여러 가지 원인

과 계기로 인해 이동하는 경우가 많이 있다. 또 전쟁이 계기가 된 민족이동도 있다. 정복자의 의복이 토착민족의 의복을 변화시키기도 하고, 두 민족의 의복이 혼합된 새로운 의복이 생겨나기도 한다. 그러나 전쟁에서는 승리를 획득한 정복자도 그 지역의 환경, 풍토, 기후에는 어쩔 수 없이 의복을 바꿀 수 밖에 없는 경우도 있다. 민족 정복의 결과, 민족은 순수성을 잃고 혼혈화 되어 가며 의복도 혼합되어 이 문화(異文化)와 접촉하고, 새로운 침입에 의해 순수한 민족적인 의복이 아닐 수도 있다. 인종이 달라도 풍토와 습관에 융화되어가는 것은 가능해, 이문화로서 대립되어 만나는 두 민족은 서로에게 영향을 주면서 풍속을 형성³⁶⁾해 나간다.

한편 예술가들은 원초적이고 원시적인 또는 민속적인 것에서 예술적 가치를 추구하게 되었고 이는 비유럽적인 것을 동경하고 동양의 정신주의에 대한 관심으로 나타나게 되었다. 비유럽 문명 세계에의 동경은 18세기 유럽에서 시작되어 20세기에 접어들면서 원시문명에 대한 적극적인 학문적 연구로 이어졌고, 나아가 단순한 자연 상태의 삶에 대한 욕구를 불러일으켰다. 18세기경 낭만주의 시대에는 유럽 각지의 상류계급 사이에서 이국 취향이 유행되기 시작했는데 이때는 시느와즈리(Chinoiserie-중국취향), 혹은 튀르크리(Turquerie-터키취향)이라고 하여 미술, 음악 등에 주제가 되기도 하였다. 영국인들의 프랑스풍에 대한관심이나 동방과의 직접적인 교류로 부각되기 시작한 오리엔탈리즘은 낭만주의의 한 경향인 이국취향³⁷⁾을 대표하던 것이라 할 수 있다.

이에 현대패션은 '다른' 패션(전통의상, 이전의 패션룩, 하위문화와 '이국적'이라 여겨지는 다른 문화들을 포함한) 으로부터 '이국적인' 테크닉을 차용해 오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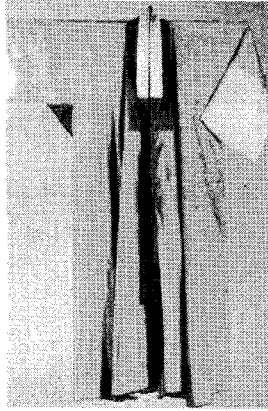
2) 조형적 특성

조형적 특성은 크게 공간성과 평면성으로 나누어 살펴보기로 한다.

조형적 특성에서의 공간성은 복식의 크기의 여유를 두고 빅룩(big look)을 이루었다는 것인데 동양의 중심사상인 여유로움이 표현된 스타일로 젠 스타일



〈그림 7〉 단의, 과퇴(短衣, 腿)의 남자(사천출토)³⁸⁾



〈그림 8〉 청첩리³⁹⁾



〈그림 9〉 인도사리⁴⁰⁾



〈그림 10〉 파키스탄 복식⁴¹⁾

로 통할 수 있다. 젠스타일의 가장 큰 특징은 느슨한 재단이다. 전체적으로 승려나 구도자를 연상시키는 차림이며 부드럽게 늘어지는 소재로 드레이프성을 강조하거나 대담한 사선형 실루엣⁴²⁾을 사용한다.

인체의 형태 자체보다는 그 정신성에 더 중요한 의미를 부여하는 동양의 가치관은 인체를 추상적으로 인지하였고, 따라서 복식의 형태는 여유로움과 적적함을 지니며 인체를 구속하지 않는 편안함을 가졌다. 한편 우리나라의 고려 귀 부녀 복식의 한 예를 보면, 조라(羅) 3폭에 길이 8척이나 되는 몽수(蒙首)를 쓰고 눈만 내어 놓았고, 남자⁴³⁾같이 백저포(白紵袍)를 입었으며, 문릉(紋綾)으로 만든 관고(寬袴) 안은 생초(生)로 받치고 그 통을 넓게 한 것은 몸에 달라붙지 않게 하려고 한 것이라 하였다...⁴⁴⁾ 또 중국 역사의 예를 볼 때, 진한 시대의 노동자 복식에서도 그 양식을 보면 노동하기에 편리하게 하였고 전체적으로 비교적 헐렁하였다.⁴⁴⁾〈그림 7〉고 전하고 있고, 조선시대 여자 서민복 외투인 장옷 〈그림 8〉에서도 그 여유로움을 찾아 볼 수 있다.

일본 고대 복식에서도 손발이 밖으로 노출되도록 개방된 원피스형이 많은데, 통풍이 잘 되게 하기 위해 의복이 몸에 붙지 않게 입을 수 있도록⁴⁵⁾ 만들어졌다. 인도를 포함한 나라들의 권의형의 의복〈그림 9〉이나 이란 이라크를 포함한 관두의 형의 복식〈그림 10〉⁴⁶⁾에서도 역시 공간성이 이루어지고 있다. 이와

같이 동양 복식등은 전반적으로 비교적 여유 있고 풍성한 형태가 기본으로 되어있는 것을 발견 할 수 있다.

두 번째의 조형적 특성으로 평면성을 들 수 있는데, 동양복식은 서양복식처럼 형을 만들기 위한 부속 재료나 기법을 사용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또한, 재단과 봉제에 있어 서양복식은 인체를 자로 재어 그 정확한 치수에 의하여 인체의 곡선을 살리는 구조형인 반면, 동양복식은 그 구성이 직선적이며 인체의 곡선을 무시한 비구조적인 형이라 하겠다.

한 예로, 우리나라 복식의 구조형을 살펴 볼 때, 규합총서(閏閣叢書)에 '도포(道袍)의 길이와 너비는 각각 몸매에 따라 해야 하니 정한 척도가 없되, 대개 등 바대가 진동 밑에 닿아야 뒷모양이 맛갑고...'⁴⁷⁾ '깨끼 적삼은 본 척수보다 두 치수를 더 넉넉하게 마르고 지을 적에 섯을 길편에 들여...'하고 그 재단법을 설명하고 있는 것에서 볼 수 있는 것과 같이 옷을 재단함에 있어서도 서양에서와 같이 부위별로 정확한 치수를 재기 보다는, 길이와 폭에 기준하여 재단하였음을 볼 수 있다. 이는 동양복식의 기본형이 비구조적인 평면형으로서, 복식을 인체에 밀착시키기 위한 내부의 구조적인 선을 갖지 않는다⁴⁷⁾는 의미로 보여 질 수 있겠다. 이와 같이 복식에서의 평면적이라는 것은 극동 삼국 즉 한·중·일을 비롯한 동양권 국가들의 전통 복식의 공통점의 하나라고 할

〈표 1〉 특성비교

	미니멀리즘의 특성	에스닉 미니멀리즘의 특성
공통점	기능성, 합리성, 검소성, 단순성	
차이점	명료성, 반복성	민족성, 이국성, 공간성, 평면성

수 있겠다.

따라서 미니멀리즘과 에스닉 미니멀리즘의 특성은 다음과 같은 〈표1〉로 정리될 수 있다.

IV. 미니멀리즘과 에스닉 미니멀리즘의 특성 비교

1. 정신적 특성 비교

이 장에서는 정신적인 면과 조형적인 면으로 구분하여 좀 더 구체적인 차이점과 특징을 살펴보기로 한다.

정신적 특성의 기반으로 유토피아적 모더니즘의 특성과 유기적 모더니즘의 특성, 모더니즘적 특성과 포스트 모더니즘적 특성으로 논해보고자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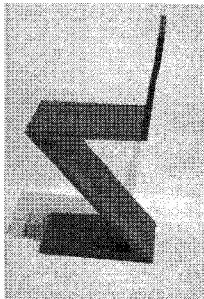
먼저, 유토피아적 모더니즘과 유기적 모더니즘적 특성을 비교 정리하면,

1차 세계 대전 전까지는 디자인에 있어 장식적인 요소가 많이 가미되었었다. 그런데 이러한 장식적인 요소들은 1920년대의 새로운 시대정신에 적합하지 못했고, 장식적인 요소들이 배제되기 시작했다. 이와 같은 시대정신에 비추어 볼 때 세기말의 환상적이고 화려한 디자인은 보다는 검소하고 기하학적이며, 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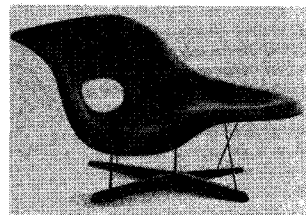
능적인 디자인이 더 적합⁵⁰⁾했던 것이다. 그러한 분파의 하나로 탄생된 것이 유토피아적 모더니즘이라 할 수 있다. 유토피아적 모더니즘은 딱딱하고 기하학적 형태를 중심으로 하는 기능주의적 기계미학의 디자인으로 일체의 장식을 제거해서 간결하고, 스마트한 디자인으로 개발되었다(그림 11).

한편, 모더니즘의 딱딱하고 기하학적 형태를 중심으로 하는 기능주의적 기계미학의 디자인 운동은 다시 1940년대 중반부터 양식적으로 변화하기 시작하였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산업 생산에서 요구되는 기능주의 간결한 디자인을 그대로 지속하면서 좀더 우아하고 부드러운 느낌의 곡선, 특히 가느다란 선과 추상적인 덩어리 형태와의 균형, 간결하고 순수하며 비대칭적이면서 아주 자유로운 형태를 특징으로 하는 양식⁵¹⁾인 유기적 모더니즘이 탄생 된 것이다(그림 12). 유기적 모더니즘 디자인은 아르누보 시대 이후 자연의 유기적 형태와 산업 생산에서 요구되는 기능 사이의 갈등을 잘 조화시키는 데에 아주 성공했으며, 이 자유로운 형태는 1950년대에 와서는 더욱 자유롭고, 조각적인 부풀린 형태로까지 변형되었다. 1920년대와 1930년대의 딱딱하고 절제된 그리고 검소한 국제주의 모더니즘 디자인이 중산층의 디자인



〈그림 11〉 지그재그 의자⁴⁸⁾



〈그림 12〉 역마차(모형)의자⁴⁹⁾

의식과 잘 조화되어 우아한 모더니즘 디자인으로 다시 부활 되었다고 말할 수 있다.

다음 모더니즘적 특성과 포스트 모더니즘적 특성을 간단히 살펴보기로 한다. 정 시화⁵²⁾는 그의 저서 '산업디자인 150년'에서 모더니즘의 특성을 다음과 같이 요약하고 있다.

절충주의를 거부하고 과거의 것, 역사적인 것, 전통적인 것은 완전히 타파하기를 주장했으며, 모더니스트들은 꾸밈과 장식을 거부하고 유기적 형태보다 기하학적 형태를 더 좋아했다. 이들은 간결성, 명쾌성, 균질성, 순수성, 질서와 합리성을 내세웠다. 또한, 모더니스트들은 국가적, 지역적 양식을 거부했으며, 오로지 국제적 양식만 찬성하였다.

따라서 이러한 상상 체계는 미니멀리즘의 근간을 이룬다고 할 수 있다.

포스트모더니즘은 모더니즘이 가진 양식들이 붕괴되면서 나타나기 시작했고 상대성, 다원성, 다양성의 성격을 가지며 과거의 형식을 소생⁵³⁾시키려 노력하였다. 그 특징에 있어서는 동 서양의 양식을 혼합하는 대등적 절충현상이 보여지며, 다른 문화에 대한 접촉과 인식 그리고 교류로 인하여 자기 민족 중심에서 탈피하여 문화의 합리적인 면을 추구⁵⁴⁾할 수 있게 하는 것이다. 또한, 포스트 모더니즘은 복고 무드를 현대에 맞게 재 연출하면서 기존 형식에서 탈피된 연출을 시도하고 에콜로지 무드를 중시하면서 대비되는 것들을 새롭게 연출하는 것이다. 1990년대로 접어들면서 아름다운 육체가 중시되는 경향으로 자연스럽게 인체를 속박하지 않는 편안한 연출을 시도함으로써 단순함과 자유로움이 적절히 조화를 이루는 복식의 새로운 발전을 가져오게 된 것이다.

2. 조형적 특성 비교

조형적인 특성은 면적의 최소화와 면적활용의 여유성, 단순 입체성과 단순 평면성, 소재의 다양성과 자연 친화적 소재, 색채의 선명성과 색채의 절제성 등으로 구분하여 살펴보기로 한다.

먼저, 면적의 최소화와 면적 활용의 여유성에 있어 최소한의 표현으로 극대의 효과를 노리며 과장된 없는 절대적인 연출로 '최소주의 패션'을 일컫는 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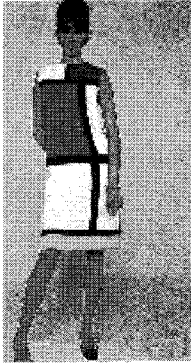
니멀리즘은 단순의 극치를 표현 하는데 여분이 될 만한 거추장스러운 것은 완전히 제거하는데, 이것은 본질 추구의 한 수단으로 면적의 최소화, 극소주의⁵⁵⁾를 생각 할 수 있다.

1960년대 메리퀀트에 의해 처음으로 미니스커트가 선보이면서 본격적으로 패션에 이러한 경향이 반영되기 시작하였는데, 초기의 미니스커트는 기존의 도덕관념에 위배되는 것으로 사회적으로 많은 논란의 대상이 되었으나, 활동적이고 단순한 스타일로서 미니의 개념은 실용성과 기능성이라는 장점을 지니고 대중의 감각으로 급속하게 전파되었다.

이에 반해, 에스닉 미니멀리즘의 기반을 이루고 있는 동양복식의 유형에서는 오히려 면적의 공간성이 강조되기도 한다. 구조적 실루엣에서 벗어나 자연의 섭리에 벗어나지 않으며⁵⁶⁾ 인간 삶을 표현하는 여유 있는 풍성한 실루엣으로 형성 되면서 단순함과 동시에 인체를 구속하지 않는 동양 패션의 정체성이 내포되어 있는 것이다.

두 번째로는 미니멀리즘은 대단히 추상적이고, 간단한 장식적 세부묘사마저 결여된 1960년대 이후의 예술을 지칭하는데⁵⁷⁾ 이와 같은 미니멀리즘을 추구한 서구의 대표적 디자이너로서 쿠레주 복식의 실루엣은 대부분 기하학적인 라인으로 A라인, Trapezoid 라인, Square라인⁵⁸⁾ 등이 많이 나타났다. 이처럼 미니멀리즘의 추구에 있어서는 어떤 간소한 입체성과 구체적인 구조성 갖는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에스닉 미니멀리즘적인 경향에 있어서는 먼저, 현대패션에 차용되는 일본의 복식이미지를 살펴보면, 전통복식인 기모노의 응용에서 형태적 특성과 착용방식을 현대적으로 재현한 직선적인 실루엣, 평면구성, 직선의 것, 사선의 여밈과 오비⁵⁹⁾를 들 수 있다. 이와 같이 의복의 본질적 요소의 추구는 같지만 단순함과 단순함을 추구함과 동시에 평면형의 형태를 취한다는 의미에서 차이를 갖는다고 볼 수 있겠다.

다음으로 색채의 선명성과 색채의 절제성이라는 차이를 가지고 있다. 미니멀리즘<그림 13, 14, 15, 16>에 있어서는 색의 종류를 제한하며 단순미를 추구하면서 주로 색의 채도가 높은 선명한 색채를 사용하고 있지만 에스닉 미니멀리즘에 있어서는 동양의 이



〈그림 13〉 Y. S. Laurent, Mondrian design⁶⁰⁾



〈그림 14〉 1960년대, Andre Courreges Fashion Designers 19961)



〈그림 15〉 1960년대, Givenchy⁶²⁾



〈그림 16〉 1960년대, Oleg Cassini⁶³⁾

미지를 통해 에크루(ecru)와 같이 가공되지 않은 색상과 빛이 바래서 퇴색해 버린 듯한, 저 명도·저채도의 색상, 땅, 하늘, 나무에서 찾을 수 있는 자연적 색상이 화이트, 베이지, 그레이, 브라운 등을 사용해 표현된다. 이러한 색채의 표현은 지식으로 인한 체험 감각이 아니라 의미화 된 철학적 사고이며, 이는 공을 표현하는 동양의 색채 감각으로 관념화된 색으로서가 아니라 마음을 통해 깨닫고 느끼는 색⁶⁴⁾으로 나타나고 있다(그림 17-26).

네 번째로 소재 사용을 살펴보면, 20세기의 최 전성기인 1960년대 속에서 우주룩과 함께 더욱 더 새로운 현대미를 추구했던 앙드레 쿠레쥬의 미니멀패션에서의 소재는 대부분 힘있고 뽀뽀한 재료가 주류를 이루면서 드레이프성(Drapery)이 거의 없는 매끈한 외관을 형성⁶⁵⁾하였다. 주로 양면모직, 가죽, 개버딘 같은 두꺼운 소재〈그림 13-16〉를 사용했으며 60년대 건축에 있어서 많이 사용했던 철과 유리의 사용을 패션 소재 선택에 적용하여 유리와 같이 투명한 느낌의 시스루 소재와 철과 같이 빛나는 광택 나는 소재를 미래 지향적 작품에 응용하기도 하였다. 이전 패션에 있어 투명 소재와 다른 점을 든다면 종래의 시스루 감각의 로맨틱 무드보다 더 섬세하면서 캐주얼 감각을 강조하여 클린인 무드(Clean Mood)로 완성⁶⁶⁾된다는 것이다. 그는 또한 비닐, 메탈, 시퀸스(sequins)등의 non-fabric을 소재로 사용하기도 하였다.

1990년대 미니멀리즘 역시, 이러한 복합적 요소가 맞물려 오면서 세기 말 미니멀 패션의 소재로 주로 하이테크소재가 사용⁶⁷⁾되고 있었다.

한편, 패션에서의 오리엔탈리즘과 젠은 주로 천연 섬유로 표출⁶⁸⁾되고 있는데, 선 사상은 자연의 질서를 침해하지 않으며, 동화된 삶을 강조하고 있고 자연 친화적인 형태로 나타난다. 염색하지 않은 천연 소재의 사용과 시집치리를 하지 않은 올풀림의 형태를 나타내기도 하며 주로 면, 마, 실크, 모 등의 천연 섬유와 전혀 가공되지 않은 생지 상태의 소재를 사용하며, 자연의 질감을 그대로 담고 있는 러스틱한 생사(raw 실크)나 황마(jute), 라피아(raffia: 야자와 식물)로 짠듯한 엉성한 표면을 가진 소재, 꾸깃꾸깃하고 불규칙한 표면을 가진 소재 등으로 가공하지 않은 천연의 느낌을 살려 자연과 하나된 인간의 모습을 표현⁶⁹⁾하기도 한다. 일찍이 농경생활을 영위한 동양인들은 자연의 위대함과 이치를 깨달아 자연에 적응하고 자연과 조화를 이루려는 태도를 가지는 경천사상(敬天思想)과 자연숭배사상(自然崇拜思想)을⁷⁰⁾ 바탕으로 하여, 이를 통해 자연의 흐름에 거스르지 않는 복식 재료를 표현 한 것이다.

지금까지 살펴보았던 미니멀리즘과 에스닉 미니멀리즘의 특징 비교를 정리하면 〈표 2〉와 같다.

<표 2> 미니멀리즘과 에스닉 미니멀리즘의 특성과 차이

	창신적 특성	조형적 특성
미니멀리즘	유토피아적 모더니즘적 특성 모더니즘적 특성	면적의 최소화, 단순 입체성 소재의 다양성 색채의 선명성
에스닉 미니멀리즘	유기적 모더니즘적 특성 포스트 모더니즘적 특성	면적 활용의 여유성, 단순 평면성 자연 친화성, 색채의 절제성

V. 에스닉 미니멀리즘을 추구하는 현대 패션 디자이너

60년대 중반부터 나타나기 시작한 포스트 모더니즘(71)의 영향으로 70년대에 퓨전이라는 개념이 생성된(72) 이후의 시기를 통하여 10여 명의 패션 전공자와 본 논문의 주제에 부합된다고 생각되는 대표 디자이너의 작품을 시대별로 고찰해 보고자 한다.

1) Issey Miyake(이세이미야케)(그림 17, 18) 70년대

Issey Miyake(이세이미야케)는 일본의 민족적 의상을 세계 패션에 도입시켜 서구의복식과 집복시킴으로써 그의 디자인적 철학은 동양과 서양 테크놀러지와 엄격한 일본 고유전통과의 조화에 근본(73)을 두고 있다.

‘한장의 옷감’으로 제작하는 복식에서 그 특성을 발휘(74)한다. 한 장의 천으로 최대한 구성 선을 배제하여 이음선 없이 연속되는 원(遠)을 상징적으로 나타내면서 정형화 되지 않은 무 형태로서 옷의 구성 방법은 평면 재단이 되는 것이다.

미야케는 일본적이지도 않고 서양적이지도 않은 패션(75)을 창조하려고 했다. 즉 동서양의 구성 요소를 혼합하여 오프쿠르트의 정형화된 형태에 도전(76)하여 운동복만큼이나 편안하고 가벼운 옷(77)을 만들게 된다.

두 그림모두 색채에 있어서 검정과 재색을 사용해서 색의 절제를 보이고 있고 소재도 울 소재의 천연 소재를 쓰고 있다.

2) 조르지오 아르마니(George Armani)(그림 19, 20) 80년대

조르지오 아르마니(George Armani)의 의상은 베이

직한 라인으로 장식이 배제된 심플한 라인으로 유명하다. 봉재선이 없고 비 구성적인 섬세함이 있으며 기본적인 형태의 디자인에 줄무늬를 넣어 일본의 미니멀리즘처럼 심오한 통제를 반영하고 질 샌더와 함께 청교도적인 절제, 합리적, 기능적인 패션으로 현대의 미학을 표현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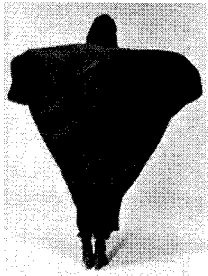
이 두 가지 작품에서 보면 인체를 구속하지 않는 loose한 편안함과 활동성이 부여 되어 있다.(78) 그리고 에크루한 재색 계통의 색과 툰 다운된 황색상을 사용하여 색의 절제를 이루었고 소재로는 wool 소재를 사용하고 있다.

3) 마르틴 마르지엘라(Martin Margiella)(그림 21, 22) 90년대

서양복의 가장 큰 특징은 옷을 어떻게 해서든지 인체의 모습에 담아 놓으려 한다는 점이다. 서양복의 다야트를 넣는다든지, 프린세스 라인 등을 이용해서 인체의 입체적인 모습을 그대로 담는다는 기존 정보를 이용해 서양복의 모든 의복을 평면으로 바꾼다(79)는 것이다.

1960년대 이후부터 억압된 것의 복귀현상이 탈중심화 현상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나기 시작 하였으며 무가치하게 느껴지고 소외 되어 왔던 소수 민족의 양식으로부터 차용한 어떤 요소를 하위 문화의 양식으로부터 이탈시켜 재해석함으로써 새로운 미를 창조 하고 서구 중심의 획일적인 미의식을 붕괴(80)시켰다. 마르틴 마르지엘라(Martin Margiella)는 프린세스 라인 요소를 가지면서 서양적인 방법으로 평면화(81)를 시도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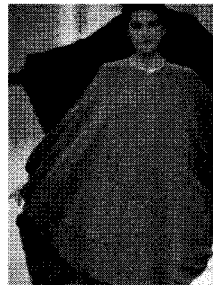
한편, 바지 디자인에서, 바지는 통바지를 만들 듯이 넉넉하게 바지 패턴을 뜬 다음 바지를 다리 사이에 넣고 지퍼로 트임을 조절하고 원하는 노출 정도



〈그림 17〉 1970년대, Issey Miyake⁸²⁾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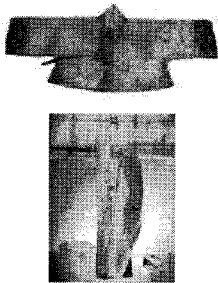
〈그림 18〉 1970년대, Issey Miyake⁸³⁾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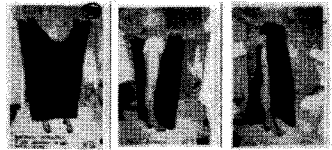
〈그림 19〉 1985-1995, Giorgiou Armani⁸⁴⁾



〈그림 20〉 1998-1999, Giorgio Armani⁸⁵⁾



〈그림 21〉 조선16세기 전주 한씨의 저고리 & 마르틴 마르지엘라(Martin Margiella) 패턴 보관 방법.



〈그림 22〉 98년S/S, 컬렉션: 평면화하기⁸⁶⁾



〈그림 23〉 1998년S/S, Shirin Guild⁸⁷⁾

에 맞추어 지퍼를 조정해서 입는 것이다. 색상은 무채색에 가까운 검정과 회색을 사용하고 있고 소재는 면과 wool종류의 소재를 사용하고 있다.

4) 쉬린 길드(Shirin Guild)(그림 23, 24) 2000년대

그녀의 대표적인 옷의 외형은 oversized 인데, 평면 재단과 민족풍의 독특한 레이어드 된 드레스 그리고 별개의 이란 남성복으로 정형화된 스타일의 시각형 의복이다. 이런 것들은 유럽의 가장 좋은 직물과 실을 이용하여 만들어진 현대적이고, 미니멀 아트적이며 심미적인 것으로 해석⁸⁸⁾된다.

쉬린 길드(Shirin Guild)의 옷은 간단한 네모꼴의 실루엣이며 기능과 편안함이 높고 top은 사이즈가 하나이고, 스커트와 바지는 small, medium, large가 전부로 뒤편은 아니면서 어깨에 걸쳐서 전체가 뒤덮이는 스타일(style)로 매우 헐렁해 보인다. 직물의 사용의 대부분은 양모, 부드러운 모직물, 바스락거리는

면 셔츠감, 스코틀랜드 캐시미어, 나뭇결과 같은 트위드 그리고 이란 아마포(린넨)를 이용했다. 또한 그녀는 다양한 섬유조직을 통해 섬유의 효과를 높이고 색은 어둡고 중립적인 색을 사용했다. 사진의 작품에서 역시 재색과 흑색의 중간색, 백색을 사용했고 모직물과 아마포 린넨 등을 사용했다.

5) 요지 야마모토 (그림 25, 26) 2000년대

요지 야마모토 작품의 특징은 조형적으로 인체와 의복의 적합성에 대한 기능성을 최소화하여 인체는 인체대로 소재는 소재대로의 특성을 살린 드레이프 형으로서 걸치거나, 두르는 등 착장 법에 따라 새로운 각도에서 인체를 강조하는 조형미를 창조하였다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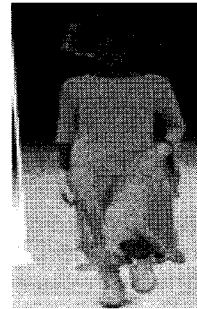
이는 일본 전통의 2차원적 구성방식에 의해 3차원적 입체감을 표현함으로써 동·서양의 복식을 성공적으로 접목시킨 새로운 조형미의 창조라 평가된다.



〈그림 24〉 2000년S/S, Shirin Guild⁸⁹⁾



〈그림 25〉 2000년, Yohji Yamamoto⁹⁰⁾



〈그림 26〉 2000-2001, Yohji Yamamoto⁹¹⁾

이러한 구성 형태의 본질은 선(禪)으로서, 사물의 속성이나 장식을 완전히 배제하고 단순한 조형의 단순성(minimalism)을 낳는 특성⁹²⁾을 보인다. 두 그림의 색채에 있어서 흑색과 채도가 낮은 백색의 색상을 하고 있고 사용된 소재는 면과 wool 종류 소재이다.

지금까지 살펴보았던 디자이너들의 철학과 특징을 요약하여 〈표 3〉으로 정리하였다.

VI. 결론

현 시대의 패션은 점점 다양화되고 고급화되면서 각자의 개성을 요구하고 또한 유행의 속도도 짧아지

고 있다. 패션 사이클의 주기 역시 빨라진 현대의 패션은 '과거의 것'을 재창조하는 경향이 짙음을 알 수 있다. 또한 포스트모던패션의 출현과 함께 붙어온 복고풍의 열기는 1960년대 반문화의 하나였던 미니멀리즘의 재등장을 낳게 하였고 고대로부터 이루어진 동서양 문화의 인식 그리고 교류는 복식문화의 발전에 많은 영향을 미쳐 왔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현대에 이르러 그 양상이 다양하고 뚜렷하게 전개되고 있는 상황에서 미니멀리즘적 요소에 동양의 정신(Sprit)과 동양모드의 조형적 특성이 가미된 에스닉 미니멀리즘에 관한 정의를 내려보고 미니멀리즘과의 비교 고찰을 통해 그 사상

〈표 3〉 미니멀리즘 추구 디자이너와 에스닉 미니멀리즘 추구 디자이너들의 특징 비교

	구성	소재	색상
이브생로랑	입체재단, 최소구성	두터운 양면모직	삼원색과 white의 조합
피에르가르맹	입체재단, 최소구성	두터운 양면모직	white
쿠레쥬	입체재단, 최소구성	wool, 비닐, 합성가죽	red, white
트위기 의상	입체재단, 최소구성	메탈릭한 합성섬유	purple, silver
지방시 의상	입체재단, 최소구성	두꺼운 양면모직	선명한 pink
올레 카시니 의상	입체재단, 최소구성	두꺼운 양면모직	선명한 red
이세이미야케〈그림15, 16〉 70년대	평면재단, 공간구성	부드러운 wool	저채도의 흑색, 재색
조르지오 알마니〈그림 17〉 80년대	평면재단, 공간구성	부드러운 wool	저채도의 황색, 저채도의 재색
마르틴 마르지엘라 〈그림 18, 19〉 90년대	평면재단, 공간구성	wool	흑색
쉬린길드〈그림 20, 21〉 2000년대	평면재단, 공간구성	wool, 아마포, 린넨	재색, 저채도의 백색
요지야마모토〈그림 22, 23〉 2000년대 8+	평면재단, 공간구성	면, wool	흑색과 저채도의 백색

적 특성과 조형적 특성을 알아보았다. 세계무대를 배경으로 활동하는 디자이너들의 작품을 통해 동양복식이 서양패션에서 얼마나 중요한 근원이 되고 있는지에 대한 분석을 통해 복잡·다양한 현대 복식에서의 에스닉 미니멀리즘을 이해 하고자 하였다.

이에, 미니멀리즘과 에스닉 미니멀리즘과의 비교 고찰을 통한 연구 결과 정신적인 면과 조형적인 면으로 구분하여 그 특징을 분석해 볼 수 있었다.

정신적인 면에서의 특성을 비교해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딱딱하고 기하학적 형태를 중심으로 하는 기능주의적 기메미학의 디자인 특성을 가지고 일체의 장식을 제거해서 간결하고 스마트한 디자인을 추구한 유토피아적 모더니즘은 미니멀리즘적 특성이라고 볼 수 있다. 한편, 기능주의의간결한 디자인은 그대로 지속하면서 좀 더 우아하고 부드러운 느낌의 곡선, 가느다란 선과 추상적인 덩어리 형태와의 균형, 간결하고 순수하며 비대칭적이면서 아주 자유로운 형태의 유기적 모더니즘은 에스닉 미니멀리즘의 관점에서의 특성 이라고 풀이될 수 있다

둘째, 꾸밈과 장식을 거부하고 간결성, 명패성, 균질성, 순수성, 질서와 합리성의 가치를 신봉하며 지역적 양식을 거부하고 국제적 양식만을 찬양한 모더니즘은 미니멀리즘적 특성이라고 볼 수 있는 반면, 동·서양 복식의 양식을 혼합하는 대등적 절충현상을 보이면서 동시에 다른 문화에 대한 접촉과 인식 교류를 통해 자기 민족 중심에서 탈피하여 의복 형태의 합리적인 면을 추구한 특성은 에스닉 미니멀리즘의 관점으로 풀이될 수 있다.

조형적인 면에서의 특성 비교해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최소주의 패션'을 일컫는 미니멀리즘은 단순의 극치를 표현하는데 있어 여분이 될 만한 거추장스러운 면을 완전히 제거하는데 반해 에스닉 미니멀리즘에서의 면적의 크기는 오히려 공간성의 강조로 나타나 인체를 구속하지 않는 동양 특유의 정체성을 나타내고 있다.

둘째, 미니멀리즘은 단순화를 추구하는 디자인으로 기하학적인 라인을 추구하며 입체성과 구체적인 구조성을 갖지만 에스닉 미니멀리즘의 단순성의 표현의 방법으로 평면적인 특성을 강조한다.

셋째, 미니멀리즘은 색채 표현에 있어 색채의 선명성을 추구하지만 에스닉 미니멀리즘은 색채의 선택에 있어 색채의 절제성을 추구 한다.

넷째, 미니멀 패션에 등장한 소재는 대부분 힘 있고 뻣뻣한 재료를 사용하거나 철이나 유리 소재를 사용하는 등 하이테크 소재를 사용하고 있는 반면, 에스닉 미니멀리즘적인 소재는 주로 천연섬유로 사용하고 있다.

이와 같은 정신적, 조형적 특성을 고찰 해 보고 세계적인 현대 패션 디자이너들의 작품을 통해 결과 미니멀리즘 패션이 기본적인 기능성을 강조 하고 있는데 비해 에스닉 미니멀리즘 패션은 동양 정신의 깊이와 함께 평면성과 공간성이 추가되어 표현되고 있었다. 미니멀 패션이 딱딱함과 활동성의 제약이라는 특성을 지닌 반면 에스닉 미니멀리즘 패션은 구조적인 특성을 통한 부드러움과 편안함이 가미된 소위 '합리주의'패션 추구라고 볼 수 있다. 이는 동양복식이 서양 패션에 나아가 세계 패션의 중요한 근원이 되고 있음을 암시 하는 것이며, 글로벌 시대를 맞아 그 미적 가치는 더욱 상승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참고문헌

- 1) 조영아 (2000). 현대패션에 나타난 동양모드 연구. 홍익대학교 산업미술대학원, p. 12.
- 2) 정시화 (1996). 산업디자인 150년. 미진사, p. 231.
- 3) 박성찬 (2001). 현대 패션에 있어서 미니멀리즘 요소에 관한 연구. 계명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pp. 3-4.
- 4) 도널드저드의 조각, 자료검색일 2007. 10. 5, 자료출처 <https://www.chinat.org>
- 5) Courreges, *Designers History 10 Years*, p.
- 6) 중앙일보 (1981). 현대 미술용어 사전, p. 63.
- 7) Kenneth Baker (1988). *Minimalism*. New York: Abbeville Press, p. 83.
- 8) 임진희 (1998). 현대 복식에 표현된 미니멀리즘에 대한 연구. 명지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p. 13.
- 9) 박성찬. 앞의 책, p. 7.
- 10) 엘스위스켈리, 자료검색일 2007. 12. 10, 자료출처 <http://www.google.com>
- 11) 자료검색일 2007. 9. 10, 자료출처 <http://www.naver.com>
- 12) 도널드저드, 미니멀리즘, 현대미술운동총서, p. 10.
- 13) 정홍숙 (1967). 서양복식문화사, 교문사, p. 391.
- 14) 이현지 (1998). 20대 여성 복식에 나타난 미니멀리즘

- 에 관한 연구. 경성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p. 7.
- 15) 박성찬. 앞의 책, p. 7.
 - 16) 송기매 (1987). 미니멀리즘으로 향한 움직임, p. 278.
 - 17) 박성찬, 앞의 책, p. 15.
 - 18) 위의 책, p. 8.
 - 19) 최혜정. 앞의 책, p. 58.
 - 20) Nicola White and Ian Griffiths (2000). *The Fashion business*. Oxford. New York, p. 55.
 - 21) *ibid.*, p. 55.
 - 22) Nicola White and Ian Griffiths. *op. cit.*, p. 55.
 - 23) 김지연 (1999). 에스닉에 의한 텍스타일 디자인. 중앙대학교 예술대학원 석사학위논문, p. 4.
 - 24) 조재연 (2005). 현대 패션에 나타난 오리엔탈 시크 스타일의 미적 특성 연구. 숙명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p. 8.
 - 25) 조영아. 앞의 책, p. 35.
 - 26) 위의 책, p. 24.
 - 27) 양윤정 (1993). 현대 의상에 표현된 자연주의(Nationalism)에 관한 연구, p. 71.
 - 28) 권기영 (2002). 복식에 나타난 미니멀리즘 연구. 대한가정학회지, 40(8), p. 176.
 - 29) 조영아. 앞의 책, p. 46.
 - 30) 이준호 (2000. 2. 8). “선사의 멋-젠 스타일”. 조선일보.
 - 31) 위의 책.
 - 32) 조영아. 앞의 책, p. 45.
 - 33) 이순홍 외 8인 공저 (2002). 세계복식과 패션 정보. 교문사, p. 19.
 - 34) 김지연. 앞의 책, p. 4.
 - 35) 柳喜卿著 (1991). 韓國服飾文化史. 敎文社, p. 15.
 - 36) 이순홍 외 8인 공저. 앞의 책, p. 20.
 - 37) 채금석 (1995). 현대복식미학, 경춘사, p. 268.
 - 38) 화매(華梅)저. 박성실의 옮김 (1992). 중국복식사. 교문사, p. 31.
 - 39) 유희경, 김문자 (2001). 한국복식문화사, p. 262.
 - 40) 이순홍 외 (2002). 세계 복식과 패션 정보. 교문사, p. 7.
 - 41) 위의 책, p. 7.
 - 42) 최혜정. 앞의 책, p. 57.
 - 43) 유희경 (1991). 한국복식문화사. 교문사, p. 112.
 - 44) 박성실, 이수용 역 (1999). 중국복식사. 경춘사, p. 11.
 - 45) 이자연 譯. 北付哲郎 (4999). 일본복식사. 경춘사, p. 11.
 - 46) 이순홍 외 8인 공저. 앞의 책, pp. 18-122.
 - 47) 이상래 (1994). 현대 패션 디자인에 나타난 동양풍에 관한 연구. 세종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p. 16.
 - 48) 자료검색일 2007. 9. 10, 자료출처 <http://www.naver.com>
 - 49) 자료검색일 2007. 9. 10, 자료출처 <http://www.naver.com>
 - 50) 정시화. 앞의 책, p. 138.
 - 51) 위의 책, pp. 190-192.
 - 52) 위의 책, pp. 134-135.
 - 53) 정연자 (1993). 현대 패션에 나타난 민속풍(Ethnic)에 관한 연구. 대한가정학회지, 31(4), p. 13.
 - 54) 이인자 (1995). 복식사회심리학. 서울: 수학사, p. 64.
 - 55) 임진희 (1998). 현대복식에 표현된 미니멀리즘에 대한 연구. 명지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p. 41.
 - 56) 한경미 (2004). 일본 패션 디자이너의 의상에 나타난 Zen-style에 관한 연구. 덕성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p. 20.
 - 57) 위의 책, p. 9.
 - 58) 박숙현 (1998). 현대 패션에 나타난 모더니즘에 관한 연구. 경성대학교논문집, 19(2), p. 316.
 - 59) 최혜정. 앞의 책, p. 48.
 - 60) Y. S. Laurent (1965). Mondrian design. 서양복식문화사. 교문사, p. 389.
 - 61) 자료검색일 2007. 9. 10, 자료출처 <http://www.naver.com>
 - 62) Givenchy. 자료검색일 2008. 3. 31, 자료출처 <http://blog.daum.net>
 - 63) Oleg Cassini. 자료검색일 2008. 3. 31, 자료출처 <http://blog.daum.net>
 - 64) 임영자 (1996). 현대패션 디자인에 나타난 동양의 미의식 연구. 복식, 30, p. 271.
 - 65) 박숙현. 앞의 책, p. 316.
 - 66) 변자연, 이순홍 (1996). 미니멀리즘이 현대패션에 미친 영향에 대한 연구. 복식문화연구, 4(3), p. 441.
 - 67) 위의 책, p. 440.
 - 68) 조영아. 앞의 책, p. 47.
 - 69) 한경미. 앞의 책, p. 20.
 - 70) 금기숙 (1994). 조선복식미술. 열화당, p. 159.
 - 71) 최혜정. 앞의 책, p. 2.
 - 72) 안유정 (2000). Cross-Cultural Product Design에 관한 연구. 홍익대학교 대학원 산업디자인과, p. 1.
 - 73) 장승미 (2001). 90년대이후 패션 디자이너의 Collection을 중심으로. 국민대 디자인대학원 석사학위논문, p. 49.
 - 74) Irving Penn (1987). *Issey Miyake*. Callaway, p. 25.
 - 75) 최윤미 (2001). 패션 디자인의 창조적 발상과 모형 개발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p. 114.
 - 76) 위의 책, p. 116.
 - 77) 위의 책, p. 114.
 - 78) 정유경 (2004). 20C프랑스 패션과 이탈리아 패션의 비교연구. 서울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p. 140.
 - 79) 최윤미. 앞의 책, p. 107.
 - 80) 김이은 (1995). 복식의 Bisexuality에 관하여 1960년대를 중심으로.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pp. 31-32 재인용: 이상희 (2001). 현대 벨기에 패션 디자이너에 관한 연구 -마틴마지엘라와 드리스반 노튼을 중심으로. 성신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p. 36.
 - 81) 최윤미. 앞의 책, p. 108.
 - 82) 자료검색일 2007. 9. 10, 자료출처 <http://www.naver.com>
 - 83) 자료검색일 2007. 9. 10, 자료출처 <http://www.naver.com>
 - 84) Giorgiou Armani (2004). *1985-1995 Collections*. Paris

- and Spain Pret-A-Porter, p.
- 85) 정유경 (1998). 프랑스패션과 이탈리아패션의 비교연구, p. 140.
 - 86) 자료검색일 2007. 9. 10, 자료출처 <http://www.naver.com>
 - 87) Shirin Guild (2000). *Ethnic Style History and Fashion*. Assouline, p. 58.
 - 88) Nicola White and Ian Griffiths (2000). *The Fashion Business*. Oxford · New York, p. 57.
 - 89) Shirin Guild (2000). *Ethnic Style History and Fashion*. Assouline, p. 65.
 - 90) 자료검색일 2007. 9. 10, 자료출처 <http://www.naver.com>
 - 91) 자료검색일 2007. 9. 10, 자료출처 <http://www.naver.com>
 - 92) 김용욱 (1999). 노자와21세기. 통나무, p. 67.